

2017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호주, 뉴질랜드 -



이 천 시 의 회

I

연수 개요

□ 목 적

- 호주, 뉴질랜드 시의회 및 관광청 시설 및 운영제도를 체험 견학하여 비교연수를 통한 선진 의정활동 구현 방안 모색
- 관광자원 홍보와 축제 운영제도를 기관 방문 및 축제관람, 관계자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우리시 관광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시의 접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기 간 : '17. 10. 23 (월) ~ 10. 31 (화), <7박 9일>

□ 연수국가 : 호주 , 뉴질랜드

- 호주 : 시드니, 포트스테인
- 뉴질랜드 : 오클랜드, 로토루아

□ 연수명단 : 6명

연번	소 속	직	성 명
1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김 하 식
2		산업건설위원장	김 용 재
3	의회사무과	과 장	이 길 수
4		주 무 관	강 성 훈
5		주 무 관	장 응
6		주 무 관	강 응

□ 연수 일정

일자	날짜	관광지	교통	주요일정	비고
1	10/23	인천→ 시드니	항공기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공항 출발 호주 시드니 공항 도착 	1일차
2	10/24	시드니→ 블루마운틴→ 시드니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 관광활용화 사례 시찰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Blue Mountains National Park) 시찰 	2일차
3	10/25	시드니→ 포트스테판→ 시드니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탐방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사업 체험 현장탐방] - 동부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험프백 고래관찰 - 바다와 모래사막이 어우러진 시드니 북부의 휴양지로 40KM의 끝없이 이어진 아나베이 바닷가를 배경으로 퇴적 현상의해 형성된 모래사막 투어 	3일차
4	10/26	시드니	버스	▶ 공식방문 [호주한인회] 한인축제 담당자 미팅	4일차
5	10/27	시드니→ 오클랜드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드니공항 출발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 도착 	5일차
6	10/28	오클랜드→ 와이토모→ 로토루아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탐방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사업 체험 현장탐방] • 환상적인 불빛을 뿜어내는 글로워와 몇천, 몇만 년의 세월을 거쳐 이뤄진 중유석들을 볼 수 있는 와이토모 동굴 투어. 	6일차
7	10/29	로토루아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뉴질랜드 농축산 사업 현장견학] ■ 농촌마을 체험농장 관광사업 현장 뉴질랜드 정통 농장인 아그로돔 농장 방문 	7일차
8	10/30	로토루아→ 오클랜드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방문 [로토루아 시청 방문] • 오클랜드로 이동 	8일차
9	10/31	오클랜드→ 인천	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클랜드 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9일차

II

연수 국가 개요

호주

- ◆ 수 도 : 캔버라(Canberra)
- ◆ 면 적 : 7,741,220km² (한반도의 약 35배)
- ◆ 인 구 : 24,120,000명(2016년 기준)
- ◆ 민 족 : 유럽계(85%), 아시아계(9%), 원주민(3%), 아랍계(14%)
- ◆ 언 어 : 영어(English)
- ◆ 종 교 : 카톨릭(26.4%), 성공회(20.5%), 그리스도교(20.5%)

□ 일반현황

○ 개 요

호주는 인구가 약 2,412만명으로 6개 주와 2개의 자치령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다(정확한 국가 명칭은 Commonwealth of Australia). 인구는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빅토리아(Victoria), 퀸즐랜드(Queensland), 서호주(Western Australia), 남호주(South Australia), 태즈메이니아(Tasmania)순이다. 호주는 해안을 접해서 도시들이 발달했는데, 가장 큰 도시는 시드니(Sydney)로 인구가 약 390만이고, 인구 320만의 멜버른(Melbourne), 인구160만의 브리즈번(Brisbane)이 그 뒤를 잇는다.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Canberra)로 정확한 명칭은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로 인구는 31만명 정도이다. 수도인 캔버라의 인구가 적은 이유는 행정수도의 목적으로 신설된 도시이기 때문이다.

○ 지리

호주의 면적은 7,741,220km²로 한반도의 약 35배이며, 총면적의 90% 이상이 사막이나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도시들은 해변가의 수목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균고도는 300m이다.

○ 기후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 계절이 한국과 정반대이다. 봄은 9 ~ 11월, 여름은 12 ~ 2월, 가을은 3 ~ 5월, 겨울은 6 ~ 8월이며, 여름은 우기로 평균기온은 27℃, 겨울은 건기로 13℃의 평균기온을 나타낸다. 전체 대륙이 남위 10.41° ~ 43.39°에 걸쳐 있어 여러개의 기후대를 가지고 있으며, 북쪽에서부터 열대 우림기후, 열대성기후, 아열대성기후, 온대성기후로 나뉘어진다. 대륙의 중앙부는 사막성 기후를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건조하며 일교차가 큰 것이 기후의 특징이다.

○ 정부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현재까지도 국가형태가 형식상 입헌군주제의 영국 여왕을 수장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 6개 주정부는 총독(Governor)이 대표하고 있다.

호주는 영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주는 입헌군주국가이며 쉽게 말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명목상 현재 호주의 최고 통치권자는 모국(母國)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다. 그렇지만 호주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최고 통치권자는 1996년에 당선되어 4기 연속 집권으로 2006년 9월 현재 10년이 넘도록 장기 집권하는 존 하워드 호주 총리이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강력한 안보 정책이 그 비결이라고 매체들은 전한다. 실제로 10년전 8%대를 웃돌던 실업률을 최근 5%대로 낮췄고, 1인당 국민소득 또한 2만달러가 채 되지 못한 수준에서 2005년 현재 3만3천달러를 훌쩍 넘어선 것은 존 하워드 호주 총리의 큰 역할이 아닐 수 없다.

○ 통화

호주 달러를 사용하며, A\$로 쓴다. 지폐는 \$100, \$50, \$20, \$10, \$5의 5종
가 있으며 주화로는 \$2, \$1, 50¢, 20¢, 10¢, 5¢, 1¢가 있다. 호주준비은행은
은행권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2년 7월부터 종이 대신 폴리머(플라
스틱 재질)로 발행하여 제조비용이 다소 많이 들지만, 위조가 어렵고 내
구성이 강하며 청결성도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한번 접히면 잘 펴
지지 않고 열에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 전압

230-250볼트/ 50사이클이며 교류 플러그는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 본
인이 소유한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전압이 이와 다를 경우에는 트랜스와
어댑터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면 된다. 대개 매우 민감한 전자제품이 아니
면 한국에서 사용하던 220볼트용 제품도 무난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 현
지생활을 위하여 새로이 전자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Free Volt용 전자제
품(100V, 220V, 240V 등 전압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
기 바란다. 호주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플러그만 맞추면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 플러그의 경우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나 한국의
220볼트 및 플러그의 형태에 관계없이 용이하게 호주 콘센트에 끼워 쓸
수 있는 어댑터를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정치와 사회

○ 개 요

1901년 6개의 영연방국으로 건설되었으나 현재는 뉴사우스웨일스·빅토리
아·퀸즐랜드·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태즈메이니아 등
의 6개 주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준주, 노던 준주로 나누어져 있다. 수도
캔버라는 뉴기니 섬의 동부와 부근의 작은 섬들을 통치한다.

○ 정 부

영연방의 하나인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치제도와 관행은 영국과 북아메리
카의 경험을 반영하여 서구식 민주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여왕이고 통치

체제는 크게 연방의회, 연방정부, 6개 주정부와 주의회 및 지방자치체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의 권한은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의회는 자체 헌법과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의 규정에 준하며 영국식 내각책임제가 실시된다. 상하 양원의 의회에는 노동당·자유당·국민당·민주당 등 4개의 정당이 있다. 이들 정당의 조직은 모두 비슷하여 연방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주에는 지부당·연방집행부·평의회가 있다.

○ 사회

전체인구의 98%이상이 백인이며, 호주의 한국 교민은 2016년 현재 약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주호주대사관자료) 사용언어는 영어로 영국 영어에 가깝다. 1960년부터 실시된 복지정책의 성공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 보존과 국민건강 복지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뉴질랜드

- ◆ 수도 : 웰링턴
- ◆ 면적 : 270,692km²
- ◆ 인구 : 4,474,549명 (2016년 기준)
- ◆ 민 족 : 유럽계(56.8%), 아시아계(8%), 마오리족(7.4%), 원주민(4.6%), 혼혈인(9.7%), 기타(13.5%)
- ◆ 종교 : 성공회(15%), 로마가톨릭(12%), 장로교
- ◆ 언어 : 마오리어, 영어

□ 일반현황

○ 개요

‘길고 흰 구름의 나라’라는 뜻인 ‘아오테아로아(Aotearoa)’로 불리는 뉴질랜드는 태고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국가이다. 뉴질랜드의 자연환경은 얼음으로 이루어진 산, 강, 깊고 맑은 호수, 그리고 문명에 때묻지 않은 넓은 휴양림과 길게 뻗은 해변, 대표적 동물 키위와 다양한 여러 동물들로 어우러져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레포츠인 하이킹, 스키, 래프팅, 번지점프 등으로서 더욱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다.

○ 사회

뉴질랜드의 전체 인구는 약 440만명으로 그 대부분은 영국계 백인이며,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약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일상용어는 뉴질랜드영어(Kiwi English)를 사용하며 마오리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종교는 성공회가 24.3%이다. 뉴질랜드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으며 현재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단계이나 아직도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지 리

뉴질랜드의 면적은 27만 평방 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약 1.2배에 이르며, 남위 34도 ~ 47도 사이에 위치해 있고 길이는 약 1600Km이다. 쿡해협(Cook Strait)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주와는 태즈먼해(Tasman Sea)를 사이에 두고 약 2,250km 떨어져 있다.

○ 기 후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정반대의 기후로 남반구의 온대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해양성 기후로 한서의 차가 심하지 않다. 날씨가 자주 바뀌기는 하나 전국에 걸쳐 일조량과 강우량이 충분하다. 여름에는 아열대성 기후가 되고 겨울에는 남섬의 남부 알프스에 눈이 많이 내린다. 1년중 가장 무더운 때는 1 ~ 2월이며 가장 추운 때는 7 ~ 8월이다. 7 ~

9월까지의 우리로서 1년중 가장 많은 비가 내리나 폭우가 오는 경우는 드물어 여행에 큰 무리는 없다. 오클랜드를 기준으로 여름철 최고 기온은 약 25℃, 최저 기온은 5℃ 정도이다.

○ 통 화

뉴질랜드 달러는 보통 N\$라고 표기하며 동전에는 5,10,20,50¢, \$1, \$2짜리가 있으며, 지폐는 \$5,\$10,\$20,\$50,\$100짜리가 있다. 이중에서 \$50와 \$100는 잘 사용되지 않는 큰돈이다. 한때 USD와 1:1 정도의 통화가치가 그린피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핵잠수함 파견 반대운동으로 인해 미국의 보이지 않는 경제압박으로 현재는 USD의 절반 정도의 가치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III 주요 방문지 및 체험기록

1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10.24.)

□ 방문 목적

- 선진 관광자원화 정책 등에 대한 비교견학을 통해 우리시 관광정책 수립 및 발전 방안 모색.

□ 블루마운틴 일반현황

-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약 1,000m대의 산맥을 뒤덮은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증발된 유액이 햇빛에 어우러져 빛어내는 푸른 안개현상으로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진 시드니에서 산악지대의 색다른 멋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주말등산이나 일일 관광 코스로 유명하다. 시드니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며 세자매봉(the Three Sisters), 경사 52도의 관광케도열차, 케이블카 시닉센터, 카툼바 폭포관광 및 산림욕 등을 즐길 수 있다.



블루마운틴



경사 52도 케도열차

□ 느낀 점 및 시사점

- 세계자연문화유산인 블루마운틴은 자연환경 그대로를 살리면서 최소한의 개발로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음

2 호주 시드니 공공시설물 시찰 (10.25.)

□ 방문 목적

- 시드니 시는 물론 호주의 랜드마크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 등을 방문하여 우리시 문화관광정책 수립시 활용하고자 함.

□ 오페라 하우스

- 호주를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이다. 1973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2세에 의해 정식 개관하였다. 1957년 국제 설계 공모전에서 당선된 덴마크의 건축가 욘 우촌에 의해 탄생되었다. 오페라 하우스의 특이한 모양에 대해 조개껍데기나 혹은 요트의 흰 닻을 형상화시킨 모양이라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와는 달리 오렌지 조각에 의해 창출된 디자인이라는 설이 유력.
- 건물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관광 상품인 오페라하우스는 콘서트홀, 오페라 극장, 전시장, 도서관, 연습실 등을 두루 갖춘 복합건물로 시드니는 물론 호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많은 방문자들이 공연관람에 관심이 없더라도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하고 있음.
- 지금은 세계 3대 미항으로 꼽히는 시드니항과 어우러져 매년 200여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시드니는 물론 호주를 대표하는 관광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하버브릿지

- 시드니 중심상업지구와 북쪽해변 사이의 시드니항을 가로지르는 주요교량으로 인접해 있는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시드니의 상징적인 이미지임. 총공사비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923년에 건설하기 시작해 1932년에 완공되었으며 1920년대에 불어 닥친 경제 대 공황을 타계하고 실업자를 구제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건설되었음.
- 몸에 줄을 매달고 하버브릿지 다리의 아치 꼭대기를 직접 도보로 걸어서 건너볼 수 있는 브릿지 클라임도 체험할 수 있는데 비싼 금액임에

도 불구하고 이색체험과 시드니의 멋진 전경을 볼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 매년 수십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 느낀 점 및 시사점

○ 시드니 시 나아가 호주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랜드마크인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브릿지는 찾아오는 관광객이 상당함. 우리시에서도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지역의 대표성을 지니는 랜드마크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이천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3 |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10.28.)

□ 방문 목적

○ 자연 그대로의 관광자원 견학을 통해 우리시 관광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와이토모 동굴 일반현황

○ 와이토모의 세 군데 대형 동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곳으로 관광객 대부분은 이곳에서 반딧불이를 만나게 된다. 동굴이 처음 발견된 것은 1887년. 현지 마오리 부족장 타네 티노라우와 영국인 측량기사 프

레드 메이스가 줄기로 만든 뗏목을 타고 지하 통로를 통해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발견한 무수히 반짝이는 반딧불로 이루어진 동굴로 1906년 동굴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가기도 했으나, 1989년부터는 본래 소유자의 후손들에게 반환되어 현재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음.

□ 느낀 점 및 시사점

- 동굴 내부에서 사진촬영 금지 등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볼 수 있으며,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관리·운영 해온 것을 느낄 수 있었음.



와이토모 동굴과 반딧불이



와이토모 동굴

4 뉴질랜드 로토루아 레드우드수목원 탐방 [10.28.]

□ 방문 목적

- 선진 산림시설 조성 및 관리실태, 관광자원화 정책 등에 대한 비교 견학을 통해 우리시 관광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레드우드수목원 개요

- 약 40여년전에 조성한 인공수목원으로 세계 2차대전에서 희생된 뉴질랜드 병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레드우드품종을 개

량하여 조성하였음.

- 50만평의 면적에 아름드리나무들이 무성하며, 특히 메타세콰이어의 경우 80년 이상된 품종도 있는데 직경이 5m이상이고 높이도 80~120m 이상으로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 때문에 일년에 1m 이상씩 자랄 정도로 생육이 빠르며 보통 한국에서 50년은 자랄 크기의 나무가 이곳에선 25년이면 자람.
- 수목원의 산책코스는 15분 정도의 코스부터 8시간 코스까지 다양하게 개발되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용객이 찾기 쉽도록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표지판을 따라가면서 코스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음. 또한 노약자 등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미끄럼 방지용 플라스틱이 설치되어 있었음.

□ 느낀 점 및 시사점

- 다양한 코스뿐만 아니라 각 코스를 색깔로 구분지어 표지판을 만들어 길을 손쉽게 찾아 갈수 있는 점이 인상 깊음.
- 장기적인 안목, 지역 특성을 살린 휴양림 조성에 반영하여 완공 후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 개발.



레드우드 수목원



레드우드 수목원

5 뉴질랜드 로토루아 아그로돔농장 방문 (10.28.)

□ 방문 목적

- 아그로돔농장을 방문하여 뉴질랜드 축산업과 관광의 접목실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실태 등을 파악하여 우리시의 축산관광단지 조성 등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일반 현황

- 면 적 : 160ha
- 운영프로그램
 - 양쇼, 양털깎기 시범, 소젖짜기, 새끼양 먹이주기, 농장투어, 양몰이 개쇼 등

□ 아그로돔농장 개요

- 아그로돔농장은 뉴질랜드의 전형적인 농장을 재현시켜 관광객들에게 양털깎기와 양몰이 개쇼 등을 보여주기 위해 개발한 곳으로 가장 뉴질랜드 다운 관광지임.
- 낙농국가인만큼 다양한 양의 종류가 있는데 총 19종의 살아있는 양들이 등장하는 양쇼와 양털깎기 시범, 그리고 직접 무대 위에 올라가 소젖짜기 체험, 새끼양 먹이주기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중간에 내려서 양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도 할 수 있음.
- 매해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며 뉴질랜드 관광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를 받은 바 있는 아그로돔농장은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유명관광지답게 다국어로 제공되는 통역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관람객에게 편리성을 제공.

□ 느낀 점 및 시사점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양떼목장과 비슷한 분위기이지만 규모면에서 차이가 상당하며, 넓은 목장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학습과 프로그램, 그리고 볼거리 등을 통해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

- 우리시도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축산업이 발달하였으므로 축산과 관광을 접목시킨 아이템으로 추후 축산관광단지 조성 시 참고·반영 할 수 있는 사례임.



로토루아 아그로돔 농장



로토루아 양모공장

6 뉴질랜드 로토루아 지역문화 탐방 (10.29.~30.)

□ 방문 장소 : 테푸이아 지열지대 및 마오리 민속마을, 정부공원

□ 방문 목적

- 마오리족 문화가 잘 보존·관리 되고 있는 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해 문화 유산보전 및 활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시 역사문화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테푸이아 지열지대 및 마오리 민속마을

- 테푸이아는 로토루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지열지대이며 동시에 마오리 족의 문화 공간임. 마오리 족의 언어로 하면 이름이 와카레와레와가 된다. 와카레와레와에 있는 가장 멋진 간헐천은 포후투이며, 포후투 간헐천은 대개 한시간에 한번 꼴로 분출하는데 높게는 그 높이가 20~30m에 이르기도 함. 또한 머드팩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열로

인해 끊어 오르는 진흙풀도 볼만함. 이 곳에는 뉴질랜드의 천연기념물이자 상징인 키위새를 볼 수 있는 키위하우스도 존재.

-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를 엿볼수 있는 마오리 민속촌에는 실제로 만져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마오리족이 조각이나 공예를 하는 모습을 관람할 수 있음.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주거형태와 건물, 전투용 카누 등이 잘 보존되어 있음.

□ 로토루아 정부정원

- 로토루아의 역사와 마오리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로토루아 박물관은 정부정원의 대표적인 건물임. 과거에 시청사로 사용한 건물을 현재는 박물관으로 개조하여 사용중이며 현재 보수공사 중임.
- 박물관은 회화, 조각, 사진을 전시하는 미술관과 마오리족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앞으로는 시민을 위한 넓은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느낀 점 및 시사점

- 다른 관광지역과 마찬가지로 화산, 온천 등 친자연적인 시설을 활용하여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이 아닌 체험하는 관광을 모토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주고 있음.
- 우리시에서도 우리시 여건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실천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

		
<p>마오리 민속마을</p>	<p>마오리족 전통공연</p>	<p>테푸이아 지열지대</p>

7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문화 탐방 (10.30.)

□ 방문 장소 : 에덴동산, 세비지 메모리얼 파크, 미션베이 등

□ 방문 목적

- 뉴질랜드 최대도시이자 교통,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오클랜드의 관광 자원화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함.

□ 에덴동산

- 오클랜드 시내 한가운데 솟아 올라있는 화산분화구로 높이는 196m이며, 산 정상에 휴화산과 분화구를 볼 수 있으며, 오클랜드의 랜드마크인 328m의 스카이다워를 비롯해 오클랜드 전 지역을 조망할 수 있음. 이곳의 백미는 산정상 분화구로 용암으로 뒤덮여 황량하거나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초지로 잘 가꾸어져 있음.

□ 마이클 조셉 세비지 메모리얼 파크

- 뉴질랜드 수상을 지냈으며 복지국가 뉴질랜드의 초석을 다진 마이클 조셉 세비지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공원으로 오클랜드와 미션베이 등의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어 시민들이 휴식처로 많이 찾는 곳임.

□ 미션베이

- 오클랜드 시내에서 인접한 미션베이는 해양 스포츠를 즐기려는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무분별한 노점상이 잡상인들을 찾아볼 수 없음.

□ 느낀 점 및 시사점

-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환경을 그대로 이용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점을 참고하여 벤치마킹.

○ 우리가 방문한 세비지 공원인근에 위치한 장미정원 내에는 관광객들이 쉴 수 있도록 벤치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벤치하단에 기증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었음. 많은 예산을 절약하며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점에서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

		
<p>에덴동산</p>	<p>마이클 조셉 세비지 메모리얼 파크</p>	<p>미션베이</p>

IV 방문 기관 및 축제 관계자 미팅(현장견학)

<호주 한인회 방문>

▶ 공식방문 [호주한인회] 한인축제 담당자 미팅

- 명칭 : Korean Society of Sydney, Australia
- 주소 : 82 Brighton Ave, Croydon Park NSW 2133
- 전화 : +61 2 9798 8800
- 홈페이지 : <http://www.koreanet.org.au/>
- 방문일자 : 2017.10.26.

□ 호주 한인회 (Korean Society of Sydney, Australia) 개요

○ 시드니 한인회는 호주 NSW 주 한인 동포들에 의해 구성되며 동포들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그의 목적 과 사업 활동은 호주 사회에서의 동포들의 지위 향상, 한인 커뮤니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각 한인사회 단체 등과 함께 호주 정착에 필요한 정보교류, 동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사회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동포들과 한민족의 정서를 공유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정체성 과 한국문화 소개 및 유지 행사의 일환으로 시드니한인회는 매년 추석을 전후하여 한국의 날(Korean Festival) 또는 한국의 주간을 설정해 각종 단체들과 화합하여 다양한 한국 전통 문화 예술 행사를 선보이며 이를 통하여 한인동포들이 세대간 구별없이 우리의 민속놀이를 함께 즐기며 고국에 대한 정체성과 일체감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사회의 타민족에게는 한국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지어 그들에게 한민족의 우수성을 체험 하게 함으로서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방문 주요 내용

- 호주 시드니 한인회 관계자 및 회장 인사말씀
- 이천시의회 및 이천시관련축제 소개
- 호주 시드니 한인회 한국의 날 축제 개최현황 청취
- 축제 지원 및 관광객 방문 현황

○ 질의응답 및 기념품 전달

□ 시사점

○ 한인주민의 경제활동 상황과 주요 경제교류 및 유망산업 고찰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

○ 시드니 한국의 날 축제시 이천시부스를 별도로 만들어 이천시 특산품 소개 및 축제 활성화 방안 모색

□ 방문 사진



호주시드니 한인회와의 간담회



자치행정위원장 현지 인터뷰



호주 한국의 날 포스터



호주시드니 한인회 페이스북

<뉴사우스 웨일스 주의회 방문>

▶ 공식방문 [뉴사우스 웨일스 주의회 방문]

- 명칭 : New South Wales Legislative Assembly
- 주소 : Parliament House 6 Macquarie Street, Sydney, NSW 2000
- 전화 : +61 2 9230 2111
- 홈페이지 : www.parliament.nsw.gov.au
- 방문일자 : 2017.10.26.

□ 방문목적

- 주의회와 주정부간의 업무추진에 따른 관계 및 역할, 책임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 제고로 이천시 의회에 접목

□ 뉴사우스 웨일스 주의회 개요

- 뉴사우스 웨일스 주의회는 시드니의 맥쿼리 스트리트의 마틴 프렐이스 맞은편에 위치함.
- 의회는 양원제로 이루어졌으며 상원은 입법회의(legislative council)로서 4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8년임.
 - 상원은 자신들의 정당이 차지하는 전체 투표수에 비례하여 선출
 - 상원은 법안의 검토 및 수정을 주로 함. 단, 법안 발의는 상·하원 모두 가능
- 하원은 입법회의(legislative assembly)로서 9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임.
 - 하원의 각 의원들은 단일 선거구를 대표함
 - 주 수상과 대부분의 장관들은 하원의원이며 대부분의 법안과 정부 사업이 하원에서 제안됨.

□ 방문내용 및 시사점

- 1816년 완공된 시드니 최초의 병원인 3개의 빌딩 중 하나가 의사당으로 사용됨.

- 1843년과 1856년에 의회 의사당이 추가되었고 사무실과 식당 그리고 도서관과 같은 부대시설이 증축
- 상원은 전체투표수에 비례하여 선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개정당과 무소속으로 다양한 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회의 시간이 아닐 경우는 정기적인 의사당 관광을 실시
- 회의 기간에는 일반 회의장에서 전체 회의과정을 지켜볼 수 있음.
- 호주의 역사는 길지 않은 반면, 입법부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만큼 체계적인 양원제 구성과 내실 있고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운영 엿볼 수 있는 뉴사우스 웨일스 주의회였음.

□ 방문 사진



뉴사우스 웨일스 주의회



뉴사우스 웨일스 주의회

<로토루아 시청 방문>

▶ 공식방문 [로토루아 시청 방문]

- 명칭 : Rotorua District Council
- 주소 : Civic Centre 1061 Haupapa street Rotorua NEW ZEALAND
- 전화 : +64 7 348 4199
- 홈페이지 : www.rdc.govt.nz
- 방문일자 : 2017.10.30.

□ 로토루아 시 현황

- 면적 : 2,615km²
- 인구 : 약 66,000명
- 특성 : 마오리족 문화의 중심지

□ 로토루아 시 개요

- 뉴질랜드 북섬의 중북부에 도시. 오클랜드 남동쪽으로 약 200km에 위치하며, 로터루아 호의 남서 끝에 있다. 온천이 많아 관광·휴양도시로서 발달했으며, 특히 남쪽 교외의 대간헐천은 유명한 곳이다. 예로부터 마오리족의 거주지로 현재도 전통적인 취락을 남기고 있으며, 인구의 20%이상이 마오리족이다. 근래에는 농업과 임업 중심지로 발전했으며, 1920년대부터 부근의 화산대지에 외래 침엽수의 식림사업이 진행되어, 1938년에 와이파에 뉴질랜드 최대의 제제소가 건설된 이래 목재가공업이 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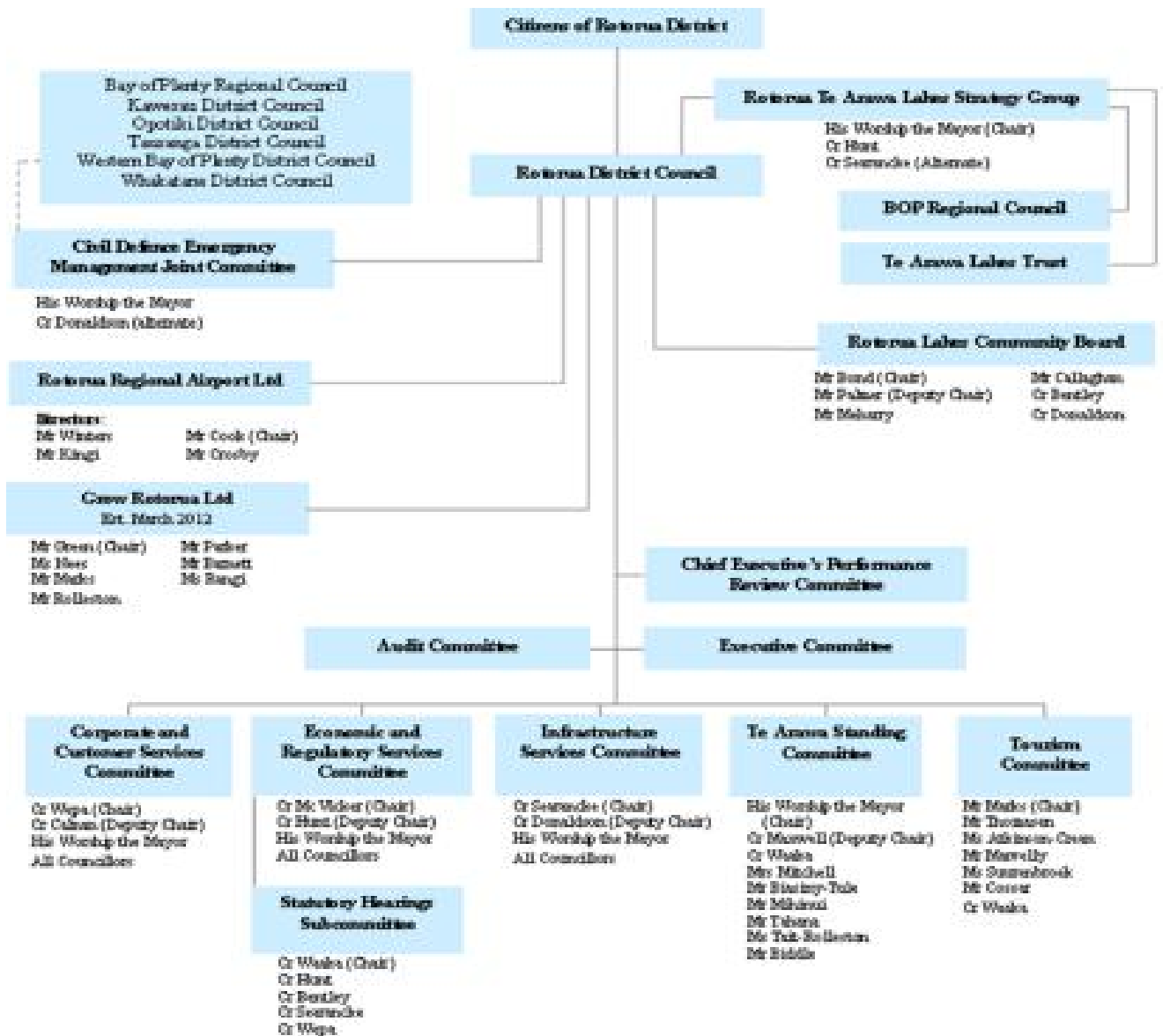
□ 로토루아 시청 · 시의회 (Rotorua District Council)

- 시정부 구성 : 의원내각제형(시장이 시의장을 겸임, 의원11명)
 - 시의원 선거는 3년마다 실시하며, 시장과 시의원이 전문경영인을 고용하여 운영을 맡기고 있음.
- 로토루아시의 역점사업
 - 건국의 역사가 짧은 뉴질랜드로서는 마오리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

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원주민인 마오리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 원주민과 함께 발전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현재 마오리족은 뉴질랜드 인구의 20%정도를 차지하며 정부에서 마오리부족 보존에 힘쓴 후 마오리족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음.
- 호주의 에버리진정책이나 미국의 인디안 정책과 달리 뉴질랜드는 마오리 문화를 인정하고 통합한 정책을 선택한 나라로 로토루아의 마오리족들은 이 지방의 마오리 문화를 알리는데 자부심이 높음.

□ 로토루아 council 구성



□ 방문 주요 내용

- 로토루아시 주요현황 청취
- 인구, 면적 등 로토루아시 주요 지표 설명
- 로토루아시 개최 축제 및 주요시정 설명
- 축제 및 시의회 운영에 대한 질의응답
- 기념품 전달

□ 시사점

- 로토루아시는 마오리족 문화를 관광자원화하여 북섬 최대 관광명소로 발돋움 하였으며, 전체인구의 약 25%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관광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등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로토루아시는 온천, 농장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살린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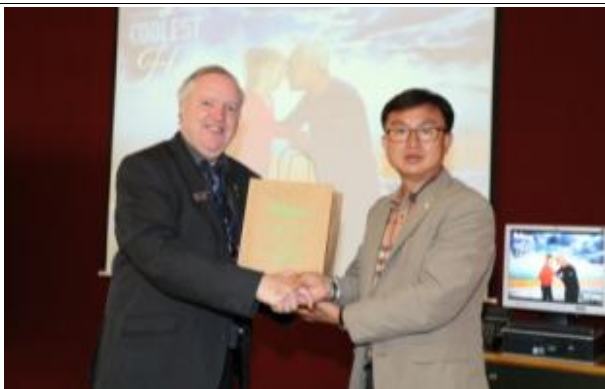
□ 방문 사진



로비 단체사진



로토루아 시의회 기관 설명



기념품 전달



내부전경

-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로 자연환경 보호정책과 각종 규제로 입국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함.
- 이는 자국의 1차산업 보호를 위해 음식물, 가공식품 등의 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는데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임.
- 두 나라 모두 광활한 초지를 바탕으로 축산 강국으로 우리나라와 지속적으로 경쟁을 할 것으로 사료됨.
- 농업현장 방문시 농업기술이나 운영시스템 등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의 농업수준이 이미 선진국에 못지 않음을 느끼게 해주었음.
- 허나 그들이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온전히 보전하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 호주나 뉴질랜드 모두 거리 어느 곳을 가나 조용하고 깨끗한 편이며, 음주와 흡연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따라서 어느 관광지역을 가도 담배꽂초나 술병조각 없이 깨끗한 편임.
- 또한 우리나라 관광지에는 잡상인과 음식점이 많은 반면 해당 나라에서는 그런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오로지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가꿔 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음.

- 일반 가정집 내에 개인소유 나무라도 함부로 베지 못하고 관청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아 자연환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임.
- 관광지에서는 정부의 지원보다도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주로 볼 수 있음.
- 뉴질랜드에서는 특히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여 관광객의 방문 유도하는 정책을 주로 펼침. 또한 마오리족 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마오리족의 인원을 늘려가고 있으며 마오리족을 통하여 문화·관광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음.
- 마오리족도 본인들의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데에 많은 자부심을 느끼는 점이 인상 깊었음.
- 두 나라 모두 단기적인 개발·발전을 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지역 특성을 살리는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 본받을만 하며, 이천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그리며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과 보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